



주간 통일정세

2013-4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중대장·정치지도원 사격경기 지도(10/29,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대회가 건군사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리 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대회를 조직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중대장대회 참가자와 화력타격 훈련 참관(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 화력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화력타격 훈련에는 비행대와 지상포부대가 투입됐으며 훈련이 끝나고 훈련장 상공에서 축포가 터졌으며 "우레같은 폭음과 포성이 진감하는(울리는) 속에 목표물이 송두리째 날아나는 것을 보면서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들은 신심과 낙관에 넘쳐 환호를 올렸다"고 밝힘.
- **北 김정은, 훈련중 희생 해군 장병 묘지 참배(종합)(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투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북한 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10월 중순 이 군부대 대잠수함 작전 수행 군함인 구잠함 233호의 지휘관과 해군들이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중 희생됐다고 전했다으나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용사들의 묘에 헌화화 참배를 하고서 묘지를 돌아보며 "조국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함.
- **北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또 시찰(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 건설현장을 찾아 호텔과 휴식장 등을 돌아보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줬다고 2일 보도함.



- 몽골 대통령, 10.29 판문점(김일성 친필비 · 정전회담 회의장 · 판문각) · 공민왕릉 참관 및 개성시 인민투 주최 연회 참석(10.29, 중통 · 중방)
- 최고인민회의, 11.1 訪北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대표단 위해 연회 개최 및 최태복(의장) · 김완수(부의장) · 김철혁 · 김영남 · 문상민 · 김성희(대의원) 등 참석(11.1, 중통)
-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대표단(단장 :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 의장), 11.1 평양 도착(11.1, 중통 · 평 · 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2단계건설 정형 현지 요해(11.1, 중통 · 평방)

나. 경제

- 북한, 외국기업에 50년간 토지 이용 · 개발권 부여(10/28, 아사히(朝日)신문)
 -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장기 이용권을 제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경제특구 14곳을 신설해 외국기업에 50년에 걸친 토지 이용 · 개발권을 제의한 사실이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작성한 투자 제안서에서 확인됐다고 전함.
- '민심잡기' 나선 北, 경공업에 갈수록 총력(11/3,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 들어 민심 잡기에 몰두하는 북한이 경공업 발전에 갈수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을 발전시켜 주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지난달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주요 과업으로 "경공업 부문에 큰 힘을 넣어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다. 군사

- 北 중대장 · 정치지도원 결의대회... "김정은 결사옹위"(10/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중대장 ·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석자들이 28일 결의대회를 열어 "중대를 최정에 전투 대오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 군 간부들이 참석함.
 - 최 총정치국장은 이 자리에서 "전군의 모든 중대를 최고사령관 동지(김



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결사 용위하는 최정예 전투 대오로 만들겠다"라고 말함.

- **北, 김일성 부자 초상화 품고 숨진 선원들 선전(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9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지키고 숨진 선원들의 이야기를 뒤늦게 소개함.
 - 신문은 '숭고한 정신, 값높은 최후'라는 글에서 육해운성의 무역선 '대각봉호'가 항해 도중 거센 파도와 강풍으로 침몰한 상황을 자세하게 적었으며 선원들이 배가 기우는 위기에서 생사를 생각하지 않고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내 군사)**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대회, 10.28 최룡해(총정치국장/연설)·리영길·장정남·김창섭 등 참가
 - 下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10.28, 중통)
 - 모든 중대를 김정은을 결사용위 하는 최정예 전투 대오로 만들 것을 결의

라. 사회·문화

- **北 축구 '명가는 '4·25체육단'...전국대회 또 제패(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소속 체육단인 '4·25체육선수단'의 남녀축구팀이 올해 북한의 전국체전 축구 경기를 동반 우승해 '축구 명가'임을 또다시 과시했다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여성 헤어스타일 다양...올가을 '새기 커트' 유행(10/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가을에 들어서면서 평양 여성들 속에서 긴 층머리(새기 커트) 형태가 파급(전파)된다"라며 "30대 여성들이 많이 하던 이 머리형태는 20대 후반기와 40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함.
 - 더하여 "(북한에서) 최근 새로운 미용기술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새로운 머리형태가 나이와 기호 등의 계선(한계)을 벗어나고 있다"고 소개함.
- **방북 스웨덴 기자 "나선시에 중국어 배우기 열풍"(10/31, 미국의소리(VOA))**
 - 중국과 접경한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주민 사이에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최근 방북한 스웨덴 기자의 말을 인용해 31일 보도함.
 - 방송은 지난달 나선시에서 열린 국제자전거관광축전에 참가한 스웨덴 'TT통신' 요한 니랜더 기자는 이날 VOA에 현지에서 인터뷰한 북한 주



민이 중국과 경제교류가 늘면서 10대 청소년들까지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승마클럽 만든 北 "승마는 민족의 전통 풍습" 선전(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과 3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승마풍습이란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희승 소장의 기고문을 연재하고 "미립 승마구락부의 준공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승마 풍습이 더 활짝 꽃피날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조 소장은 기고문에서 말 타기와 활쏘기는 오랫동안 조선의 '국기'로 인정돼왔으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말과 관련된 속담, 성구도 수없이 전해져왔다"고 설명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대표, 유엔총회서 "실용위성 계속 쏘아 올릴 것"(10/28, 조선중앙통신)**
 -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 대표가 23일 유엔총회 제68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임을 다시금 천명했다"고 전함.
- **몽골 대통령 방북...김영남과 정상회담(종합2보)(10/28, 조선중앙통신)**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28일 평양을 방문, 북한의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과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친선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과 몽골은 김 상임위원장과 엘벡도르지 대통령 등이 자리한 가운데 공업·농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과 2013~2015년 정보기술 분야 교류 계획서에도 조인함.
- **방북 몽골 대통령 "동북아 안정 위해 北과 협력할 것"(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특히 몽골과 북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전함.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8일 저녁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연 연회 연설에서 "몽골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



정,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해당한 모든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통신, 日 NSC 설치 추진 비난.. "침략적 전쟁기구"(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국가기구 체계를 전쟁국가의 체모에 맞게 완비하려는 위협천만한 책동"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일본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이 일본의 완전한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美 단체, 올겨울 방북해 우물파기 사업 지원(10/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온 미국 민간단체 '월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가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방북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 린튼 대표는 당초 올해 여름 방북하려고 했지만 북한에 보내려던 영구 산 사료구동 차량의 중국 통관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에 방북하면 북한 지하수개발연구소 관계자들과 지원 사업을 협의하고 우물관련 기계의 정비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방북 사흘째 몽골 대통령, 박봉주 내각총리 면담(종합)(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차히야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30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를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통신은 엘베크도르지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을 찾아온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전함.
- **몽골 대통령,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종합2보)(10/3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외국 정상으로 처음 평양을 찾은 차히야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나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31일 귀국했다고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 리룡남 무역상,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 등이 평양비행장에서 엘베크도르지 대통령을 전송했으며 엘베크도르지 대통령이 방북 기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났는지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음.
- **평양서 北-中 여자축구 친선경기 열려(10/31, 조선중앙통신)**

 - 14세 미만의 선수들로 구성된 북한 초병체육단 여자축구팀과 중국 여자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31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양팀 선수들의 나이는 어리지만 경기는 매우 치열했다며 북한팀이 중국팀을 2-1로 이겼다고 밝힘.

● **일본인 관광객, 中 연변 통해 북한 관광(11/1, 흑룡강신문)**

- 일본인들이 최근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를 통한 북한 관광에 나섰다고 중국 흑룡강신문이 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 3명은 지난달 21일 연변의 투먼(圖們) 통상구를 통해 북한 칠보산 관광길에 오름.

● **北, 아시아청년장애인경기서 은 3·동 1 수확(11/1,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달 26~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청년장애인체육경기대회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기록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일 전함.

● **北노동신문 "美가 압박해도 선택한 길 갈 것"(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가해도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이미 택한 길을 버리고 딴 길을 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선택한 길을 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시작된 '맥스선데'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힘.

● **방중 北 김형준 외무성 부상 귀국(11/2, 조선중앙통신)**

- 김형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10월 29일부터 중국을 방문했던 김형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외무성 대표단이 2일 귀국했다"고 밝힘.

● **北 대학, 외국과 학술교류 활발...'국제화 포석'(?) (11/3, 연합뉴스; 교육신문)**

- 북한 대학들이 외국과 활발한 학술교류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북한의 주간 '교육신문'(10월 24일자)은 김일성 종합대가 최근 평양에서 중국 연변대, 지린대와 각각 학술토론회를 열어 사회과학, 화학, 지질학, 의학·농학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대표, 10.23 유엔총회 제68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北은 평화적 우주개발에 힘을 넣고 있다'며 '우주개발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언급(10.27,평방)
-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결코 조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하며 앞으로도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들을 쏘아 올릴 것임.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대답(10.31)】 美 국무장관(케리)의 발언(北 불량배 국가) 관련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및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주장 (10.31,중통)
- 미국이 對北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의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우리(北)가 회담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꿈에도 없을 것임.

나. 6자회담(북핵)

- 北 노동신문 "핵 억제력은 흥정물 아니다" 거듭 강조(10/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통일·외교 장관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을 비난하며 "우리의 핵 억제력은 그 무엇과 바꾸기 위한 흥정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함.
 - 신문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지금까지 운병세나 류길재가 우리 노선을 시비·중상하고 북남관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데서 누구보다도 악질적으로 놀아댔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며 남측 인사들이 "북핵 폐기"니 뭐니 하며 우리의 정책노선에 대해 휘방질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함.
- 北 외무성 "6자회담 재개에 먼저 나서는 일 없을 것"(10/31,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자주독립국가인 공화국을 '불량국가'라고 모독한 것은 미국의 적대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통신 "南의 日 집단적자위권 용인은 북침전쟁 기도"(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이는 "외세를 업고 북침전쟁에 나서려는 기도"라고 주장함.
- 통신은 '역사의 반란에 가담하려는 반역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20세기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국가로, "일본 해외침략의 첫 대상은 바로 우리 나라"라며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는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반역 행위"라며 "마치 '목숨을 바쳐 천황을 받들고 충성하겠대'라는 혈서를 쓰고 '최후의 일본 제국 군인'으로 불렸던 유신 독재자가 부활한 것 같다"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南이 유신독재 미화" 비난(10/3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1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유신을 미화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저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에서 "박정희는 무지막지한 공포정치, 정보정치로 남조선을 파쇼의 암흑천지로 만들었다"며 "남조선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유신 독재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고 수치"라고 주장함.

● 北 민화협 "南, 체육에서도 대결광기"(11/1, 연합뉴스)

- 북한은 1일 전국체육대회에 '이북5도 선수단'이 참가했다며 남한이 체육분야에서도 '대결광기'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대변인 담화에서 "얼마 전 괴뢰들은 인천에서 전국체육대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여기에 월남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을 비롯한 인간쓰레기들을 긁어모아 '이북5도 선수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지적함.

● 北교원단체, 전교조 범외노조화 비난(11/2, 연합뉴스)

- 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2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범외노조 통보를 한 데 대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교직동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용부의 이번 결정을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탄압, 박해하고 신성한 교육을 파쇼 독재통치로 짓밟는 횡포"라며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기타 (대남)

- 「조국전선」 중앙委, '南에서 유신 독재 부활이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유신 독재 부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고발장 발표(10.28, 중통/유신 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 유신 독재 부활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南정권은 집권 후 유신 독재 부활에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파쇼독재 부활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과거시대를 되살리려는 낡은 세력의 발악적인 몸부림'이라고 주장(10.28, 중통·노동신문/파쇼독재 부활 책동은 역사의 흐름에 도전하는 반동공세)
- 「중통 논평」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이는 '박○○ 패당이 장차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반역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10.29, 중통/역사의 반란에 가담하려는 반역아)
 -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독도 표기와 관련해 주재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 지침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재침야망,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는 친일매국 행위"라고 비난(10.29, 중통/영토강탈 야망을 키질하는 추악한 친일매국 행위)
- 【중통사 논평】 우리 정부의 '北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 발언 관련 '남북대화의 파기자, 정세악화의 장본인으로서 저들에게 쏠린 국제사회의 비난과 여론을 오도해 보려는 설부른 수작질'이라고 비난(10.30, 중통/식민지 하수인의 주제넘은 꾸밈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10.31)] 우리 정부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미사일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핵 불소나기를 쏟아지게 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비난(10.31, 중통)
 - 우리 정부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부 용인에 대해 "쓸개 빠진 민족 반역행위"라고 비난하며 "또다시 비통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10.31, 평방/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쓸개 빠진 망동)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오바마 정권, 북한과 빨리 대화 재개해야>(10/28, NYT)

- 미국의 보즈워스 전 대북담당 특별대표는 27일 뉴욕타임즈(인터넷판)의 기고문에서 오바마 정권에 대해 북한과 핵문제를 둘러싼 대화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또한, 그는 오바마 정권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대화의 조건임을 주장하지만 대화가 중단될 경우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돼 사태는 악화될 것임을 지적했음.
- 보즈워스 전 대표는 앞서 유럽에서 최근 개최된 북한 당국자와의 비공식 회동에 참석했을 당시 북한 측이 대화재개 후에 핵개발 동결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사실을 지적, "대화가 위험을 동반해도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 이어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 제재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밝혔음.

● <미·중 6자대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타진>(10/29, 연합뉴스)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중 양국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혔음.
- 우 대표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지난 달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난 우 대표가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음.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케리 "북핵문제 진전 필요...반응 지켜봐야">(10/30, 연합뉴스)

- 28일 국무부 녹취록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DC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행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국제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며 "우리는 진전이 필요하고,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케리 장관은 이달초 일본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선다면 대화할 것이며,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하는 등 최근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케리 장관은 USIP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노력이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훼손하고 있다며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비판했음.

● <한미일 6자대표, 6일 워싱턴DC서 북핵 협의>(11/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오는 6일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3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이번 회담은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3자간 긴밀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 일각에서는 북핵 대화 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어 한미일 3자회담의 결과가 주목되나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美 "공은 북한에...비핵화 약속 지켜야">(10/29, 연합뉴스)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입장은 지금까지와 같다고만 반복해서 말하겠다"며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거듭 확인했음.
-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9·19 공동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 약속을 수없이 했다"고 지적,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런 조치를 하느냐의 문제는 북한 쪽에 공이 가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 이는 북한이 최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한데 대해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가 있어야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임.

다. 중·북 관계

● <중북 또다시 고위급 회동..."한반도 정세 의견교환">(10/3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30일 북한 김형준 외무성 부상이 지난 29일 중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협의를 갖고 중북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양측이 이번 만남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



만 6자회담 재개 문제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한편 지난달 중순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 등 북한 외무성 인사가 '9·19공동성명 채택 8돌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는 등 최근 들어 북한 측 고위관료의 방중이 잇따르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미사일, 유사시 아니라도 일본판 NSC서 논의”>(10/30, 연합뉴스)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주일 미군기지를 목표로 탄도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과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의 영해 침입 문제에 관해 "NSC에서 대처방법에 관해 일정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 그는 북한이나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평시도 아니고 유사시도 아닌 '회색지대'"라고 규정하고서 이같이 발언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가안정보장회의가 군사적 위협에 관한 문제 전반을 상시·포괄적으로 다루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도쿄신문은 NSC의 신설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국외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음.
- <日 이노키 의원, 북한 방문차 출국>(11/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프로레슬러 출신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유신회 소속 참의원은 일본 참의원 운영위원회의 방북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음에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1일 도쿄에서 출국했으며, 베이징을 거쳐 2일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노키 의원은 7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면서 노동당 요인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스포츠 행사 등에 참석할 계획이며, 장성택 국방위 분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그는 지난 7월 25~29일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장성택 부위원장 등을 만났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형MD 구축 본격화...美서 미사일 대량 구매키로>(10/27, 연합뉴스)
 -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외교·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패트리엇 대(對) 전술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DSCA는 최근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 대 전술 미사일(ATM) 112기와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 정부가 미국 측에 이 무기의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KAMD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됨.
- <미국 "한국 등 'NSA도청 논란'협의 요구">(10/30, 연합뉴스)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논란과 관련 한국을 비롯한 9개의 국가들이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정부 당국자가 NSA의 도청 문제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나, 우리 정부가 한국 대통령에 대한 도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을 했음.
 - 다만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대화나 논의를 원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우리 외교당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상 도청은 지난 7월 제기된 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입장차 여전...내달 7차 협상>(10/3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30~31일 이틀간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제6차 고위급협의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의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는 합리적인 방위비 집행을 강조하며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측은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분담금 총액과 협상유효기간에 있어서도 양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다음달 중순께 미국에서 7차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회 비준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협상은 늦어도 12월 초에는 완료돼야 함.

나. 한·일 관계

- <정부 "집단지위권 사실상 용인 표현은 부적절">(10/29,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상 용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 내에서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상



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아직 미일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뭇 근거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냐"고 반문했음.

● <韓日 국방차관회담, 11월 개최 조율...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10/30, 교도통신)

- 일본 정부 관계자가 30일, 한일 국방당국은 11월 중순, 서울에서 니시 마사노리 방위성 사무차관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의 회담을 실시할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차관회담은 그동안 연기된 기밀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목표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방 등 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 환경 악화 속에서 공조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일본 측은 2011년 6월 이래 실시되지 않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조기 개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이해를 구할 방침이며, 한국 측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임.

● <日보수신문 "차대통령 외교...일본을 피한다>(10/31, 연합뉴스)

- 31일자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가 일본만을 피하는 느낌이라며, 현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을 무시하는 듯한 외교"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미디어나 지일파 사이에서 불안감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음.
- 신문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동의하는 국가가 늘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이고 극단적인"비난이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음.
- 또한 "각분야의 이론을 얼마든지 갖다 붙이더라도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의 결단하나 뿐이며 늦을수록 부담만 커진다"는 외교소식통의 발언을 전하며 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정부, 日 독도 영상 추가유포 항의...즉각 삭제 요구>(11/1, 연합뉴스)

- 외교부는 1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지난주 항의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영문 동영상까지 추가 게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 발표에 앞서 진행된 정레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진실의 눈을 뜨기를 촉구한다"면서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일본을 위한 길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음.
- 외교부는 지난달 23일에도 논평을 내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를 불러 일본에 강력항의하고 관련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바 있음.



다. 미·중 관계

- <中 '美대사관 중국도청' 보도에 "미국이 해명해야">(11/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 대사관 등이 중국내에서 도청·감청활동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31일 "미국이 (의혹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도 관련 보도 내용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 내에 있는 외국기관과 중국주재 인원들이 '빈(비엔나)외교관계협약과 '빈영사관계공약' 등 국제조약을 준수하며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라. 미·일 관계

- <美 "집단지위권은 일본 국민과 정부가 결정할 사안">(10/2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지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한국내 논란과 미일간 협상방향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일본의 방위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정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 이어 대변인실은 "일본을 보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은 각군의 역할과 임무, 역량에 대해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캠벨 전 美차관보, 아베에 야스쿠니행 자제 촉구>(10/30,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1주년(12월 26일)이 되기 전 연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예정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베 총리의 참배 자제를 촉구했음.
 - 캠벨 전 차관보는 30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토론회에 보낸 영상 서신을 통해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하면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이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한편 캠벨은 이달 초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음.

마. 중·일 관계

- <中전투기, 사흘연속 日오키나와인근 왕복비행>(10/27,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중국군 항공기 4대가 2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오키나와 근처를 왕복 비행했고, 중국군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오키나와



- 나하 기지에서 긴급발진했다고 밝혔음.
- 중국군 항공기는 7월 24일과 9월 8일에도 같은 항로로 비행했고 25일과 26일에도 조기 경보기 2대와 H6폭격기 2대가 동일한 경로로 비행했으며, 27일에는 Y8 조기 경보기 2대와 H6 폭격기 2대 총 4대가 출격해 '무력시위'의 강도가 섰음.
 - 일본 방위 당국은 중국이 일본과의 갈등요인인 센카쿠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긴장 지수'를 다시 높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일갈등 가열...中선박 27일만에 센카쿠 근해 진입>(10/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8일 오전 9시 30분경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센카쿠 근해에서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내로 진입한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 순시선이 퇴거를 요구한데 대해 중국 해경선은 '다오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퇴거를 거부하다 오전 11시 45분께 센카쿠 주변 해역으로 빠져 나갔음.
 - 중국 정부 선박이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주변 해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27일 만이자 작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68일째임.
 - 중국군 항공기 4대가 사흘연속으로 오키나와근처를 왕복 비행한데 이어 28일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근해 진입이 재개되면서 중일 갈등은 재점화하는 양상임.
- <中, 아베총리 향해 격한 언사..."안하무인">(10/28,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일본 지도자가 중국에 관해 계속 도발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화 대변인은 "이것은 또 한 번 일본 정객이 귀를 막고 방울을 흠치는 것 같은 안하무인함과 제 잘못 때문에 안절부절 못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한편 중국 언론들은 이날 영국 BBC 방송 등을 인용해 지난 26일 제9차 '베이징-도쿄포럼'에서도 양국 대표단이 센카쿠 문제로 격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음.
- <중 외교부, "일본은 군비확충 위한 핑계 대지 않길"언급>(10/28, 인민망)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 육상 자위대 열병식에 참석해 일상 훈련과 방위를 통해 방어력을 실현하겠다는 구관념을 반드시 버려야 하며, 안보보장 법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국가와의 방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일본 자위대 열병식은 매년 한 차례 거행되면, 올해는 섬 탈환 방위를



책임지는 '서부 보통과학연계대'부대도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음.

- 이에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인 역사를 본보기 삼아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존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에 힘쓰며, 긴장과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중지하고 또 이를 군비확충 및 군사책략조정을 위한 핑계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인터뷰, 아베총리 "중국 견제해 안보 주도권 잡을 것">(10/28, WSJ)

- WSJ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베 총리는 이번 달에 연달아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의 지도자들과 가졌던 회동을 언급하면서, "나는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아태지역 안보분야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다른 국가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 그는 일본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 중 하나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서 대항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력으로 현 상황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일본도 평화적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아베 총리는 12월에 일본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 지도자들과 회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내에서 일본의 지도국 역할을 한층 더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임.

● <中 대사관, 日외무성 '센카쿠 항의' 접수 거부>(10/29, 연합뉴스)

- 환구시보는 29일,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영해 진입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항의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 한즈창 일본의 항의에 주일 중국 공사는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며 관련 해역 역시 중국의 영해로 중국 해경선이 중국 영해에서 정상적으로 순항하며 집법활동을 벌이는 것에 일본이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음.
- 상대국가의 외교적 항의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이는 센카쿠를 둘러싸고 있는 양국 간의 긴장상황이 외교적 갈등 수위도 점차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줌.

● <中호위함 2척, 일본 오키나와 주변수역 항해>(10/29, 연합뉴스)

- 중일 방위 당국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해군 호위함 2척이 29일 한때 일본 오키나와의 섬들 사이를 항해했다고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밝혔음.
- 통합막료감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호위함 2척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국간 갈등 지역인 센카쿠 쪽으로 향하다 진로를 틀러 센카쿠를 피해갔다고 함.



-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호위함 2척은 지난 18일부터 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함대의 실전 훈련에 참가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중국방부 "日군함·정찰기가 군사훈련구역 난입">(10/31, 연합뉴스)
 - 양위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해군의 원양훈련이 전개되고 있는 서태평양 해역에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과 정찰기 등이 '난입'해 자국의 훈련을 방해했다고 밝혔음.
 - 또 일본측 정찰기가 수차례 훈련구역에 진입해 정찰활동을 벌였으며 중국군 병력 이동과정에서도 일본 자위대 소속 함선과 항공기가 추적과 정찰·감시활동을 전개했다고 함.
 - 양 대변인은 이는 오판 등 의외의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발행위로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으며, 국방부는 일본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음.

- <일본 자위대 '센카쿠 사태' 상정 국내서 첫 실전훈련>(11/1, 연합뉴스)
 - 일본은 1일 오키나와, 규슈 증지에서 센카쿠 관련 유사시에 대비해 육해공 자위대 총 3만4천여명과 함정 6척, 항공기 약 280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시작했음.
 - 훈련에서 오키나와의 오키다이토지마를 적에게 점령당한 낙도로 상정되며, 자위대가 일본 영토 안에서 낙도 방어 및 탈환을 상정한 실전훈련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 관측통들은 이번 훈련은 사실상 센카쿠와 관련한 중국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상정한 연습으로 보고 있음.

바. 일·러 관계

- <일본 자위대·러시아 해군 공동훈련 확대>(10/31, 연합뉴스)
 - 31일자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이 오토츠크해에서 공동 훈련을 새로 시행하기 위해 조율중이라고 함.
 - 일본과 러시아는 내년 2월 양국 간에 처음으로 열리는 외교·국방담당 장관회의(2+2)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할 것으로 보이며, 훈련구역에 북극해 포함, 해적·테러 대응까지 훈련 내용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 산케이는 이 논의는 최근 중국 해군 잠수함이 오토츠크해 진출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의중이 반영됐으며, 중국과 센카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러시아와 공동 전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日방위상 "러시아, 일본 집단자위권에 이해 표명">(11/1,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 연석회의(2+2)에 참석키 위해 일본을 찾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



- 아 국방장관이 이날 자신과의 양자회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 오노데라 방위상은 "러시아와의 방위교류를 추진하고 싶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대해 쇼이구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방위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음.
 - 이어 쇼이구장관은 미일 양국의 MD추진이 러시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며 예들려 우려의 뜻을 표시했으며,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처럼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나라가 있다"며 "요격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해를 구했음.

사. 기 타

● <시진핑, '주변국 외교' 강화 지시>(10/26, 연합뉴스)

-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24~25일 '주변외교공작 좌담회'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 꿈' 실현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와 우호협력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계를 추진하면서 러시아, 인도 등 인접국과 중립적인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해 미국을 견제하고 남중국해 분쟁을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위협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지역 시안 개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임.

● <중국 주요매체, 일제히 핵 잠수함 부대 소개>(10/28, 연합뉴스)

- 중국은 28일 주요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해 중국의 첫 핵잠수함 부대인 북해함대 소속 제1핵잠수함 부대의 관함식장면, 훈련모습 등 위세를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냈음.
- 중국 매체들은 보도를 통해 이 잠수함 부대를 "생명을 걸고 사면을 수행하는 해저 선봉대"라고 소개하면서 이 부대가 세계 최장 기간 항행기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 중국이 핵잠수함 부대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일본의 군사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일본 등에 경고메시지와 군사력 과시 의도를 전할 목적으로 풀이됨.

● <'중국, 아·태지역 정밀 군사타격 능력 확보'>(10/29, 연합뉴스)

- 대만 왕보신문은 28일 캐나다 군사전문잡지 칸와디펜스리뷰를 인용, 미사일부대인 중국 제2포병부대의 역량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아·태평양 지역 어디든 큰 오차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 중국군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중국이 독자 개발해 쏘아올린 16기의 베이더우(北斗)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음.
- 칸와디펜스리뷰는 "중국의 군사력이 발달하면서 국경분쟁이 발생하면 이제는 분쟁 범위가 국경 주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내달 상순 서울서 한중일 차관보급 회담">(10/2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한중일 세 나라가 내달 상순 서울에서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자는 데 대체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키야마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등 참가자 3명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참가국간 양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이번 회담은 연례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3국 간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차원으로 풀이되며, 일본과 갈등을 이유로 3국 정상회담 참가에 난색을 보인 중국은 고위급 회담 개최에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푸틴 러대통령 12일 공식 방한...주변 4강중 처음>(11/1, 연합뉴스)

- 김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발표했으며, 두 나라 정상이 양자관계 및 지역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방문 기간에 두 나라는 양국 정부 및 기관 간, 기업 간의 여러 협력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